

외식업계, 스테이크로 즐기는 화려한 만찬의 향연

빔스 '그랑 파티 에디션' 콘셉트 만찬 아웃백 '블랙 라벨 셰프 에디션' 선택 매드포갈릭 겨울 시즌 테마 7종 구성 도미노피자 랍스터와 스테이크의 만남

외식업계가 연말을 맞아 '스테이크'를 활용한 화려한 만찬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우수한 마블링과 뛰어난 육질을 자랑하는 최상급 품종 스테이크에 랍스터, 크렌베리 등 특별한 가니쉬를 더하거나 특제 소스를 더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만찬 형태의 메뉴를 내놓고 있다.

빔스가 본격 연말 시즌을 맞아 샐러드 바부터 스테이크, 디저트까지 가치를 높인 다채로운 신메뉴를 출시하고 '그랑 파티 에디션'(GRAND PARTY EDITIO



350 티본 스테이크(왼쪽), 블랙앵거스 스테이크 피자.



/매드포갈릭·도미노피자

N)'이라는 콘셉트로 완벽한 연말 만찬을 선보인다. 새우 신메뉴 3종과 연어 베스트 메뉴 4종으로 샐러드 바를 풍성하게 채웠고, 대표적인 메뉴로는 해산물 스투 '슈림프 부야베스'와 '슈림프볼 크림 그라탕' 등이 있다. 특히, 겨울 시즌 한정 스테이크로 채끝 등심 스테이크와 랍스터 구이, 키조개 껍질에 올린 씨푸드 그라탕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그랑 파티 스테이크'와 두툽한 립아이 스테이크에 크렌베리를 둘러 제공하는 '메리 베리 스테이크' 등 2종도 선

빔스 그랑 파티 스테이크. /CJ푸드빌

보인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아웃백의 수석 셰프가 겨울에 어울리는 식재료를 엄선한 메뉴로 구성된 '블랙 라벨 셰프 에디션'을 내놓았다. '블랙 라벨 셰프 에디션'은 아웃백 블랙 라벨 스테이크에 뉴질랜드산 램 스테이크 또는 캐나다산 그릴드 랍스터 테일이 더해지는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됐다. 램 스테이크는 6개월 이하 뉴질랜드 청정지역에서 자란 어린 양을 엄선해 아웃백만의 시즈닝을 더하여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며, 그릴드 랍스터 테일은 갓 잡은 캐나다산 랍스터를 급속 냉동해 탱글탱글하고 짭짤 속살이 두툽한

스테이크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매드포갈릭은 겨울을 맞아 신메뉴를 출시했다. 이번 신메뉴는 '눈꽃설레임으로 그대와 마주하다'라는 시즌 테마를 바탕으로 윈터 스테이크 4종과 리조토, 파스타 3종 등 총 7종으로 구성됐다. 중 프리미엄 스테이크 라인인 티본 스테이크와 본인립아이 스테이크는 합리적인 가격과 더불어 이와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매드포갈릭 대표 메뉴가 함께 제공된다. 매드포갈릭의 티본 스테이크는 T자모양의 뼈를 중심으로 안심과 채끝 등심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부위로, 함께 제공되는 갈릭 버터 포테이토와 환상의 조합을

이룬다. 또한 500g의 두툽한 두께를 자랑하는 본인립아이 스테이크는 갈비살과 등심, 새우살로 구성돼 다양한 식감을 맛볼 수 있는 부위로 스테이크 본연의 깊은 풍미를 선사한다.

도미노피자는 겨울 신제품으로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피자'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겨울 신제품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피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상급 스테이크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에 부드러운 랍스터 살(랍스터 두홍부 살)만 다져 감칠맛을 극대화 한 '랍스터 볼', 거기에 모차렐라, 페타크림, 리코타 등 3가지 치즈 블렌딩을 올린 프리미엄 스테이크 피자다. 특히 우수한 마블링의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는 뛰어난 육질과 풍미로 고급스러운 맛을 선사하고 랍스터 불이 감칠맛을 더하며 연말을 맞이한 가족의 따뜻한 겨울 만찬을 완성한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계가 연말을 맞아 스테이크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맛과 형태의 만찬을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우수한 품질의 스테이크는 물론 랍스터 등 특별한 가니쉬와의 조합이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홍삼담은 석류스틱' 中 대륙을 사로잡다

KGC인삼공사 굿베이스

면세점 론칭 후 입소문 타고 매출 ↑

KGC인삼공사 굿베이스의 '홍삼담은 석류스틱'이 중국인 고객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5일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관장 6년근 홍삼과 여성에게 좋은 '석류과즙농축액'을 함께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홍삼담은 석류스틱'을 선보였다. 제품의 장점을 살려 지난해 8월 면세점 채널에 본격 론칭했다.

면세점 론칭 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 고객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월평균

약 51%씩 판매량이 성장했고, 올해 3분기에는 전분기대비 약 420%의 매출성장을 보였다. 일부 매장에서는 중국인들의 다량 구매에 품절사태를 보이기도 했다.

KGC인삼공사에서는 중국인 고객들이 '석류'를 여성건강 위한 소재로 많이 찾는다는 점에 착안해 '홍삼담은 석류스틱'을 면세점에 런칭시켰다. 이와 더불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고객들이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 여행 플랫폼과의 제휴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것도 주효했다.

송상욱 KGC인삼공사 브랜드실 부장은 "중국인 고

객들의 석류 제품에 대한 선호도와 더불어 믿을 수 있는 한국제품, 특히 정관장에 대한 신뢰도가 합쳐지면서 높은 구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홍삼과 더불어 새로운 건강소재들에 대한 끊임없는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벌써 설날 준비?" 롯데마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품목 축소·인기 세트 구성 늘려 가격 전년수준 동결·추가 인하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며, 롯데마트가 역대 최장 50일 간의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지난해 설보다 1주일 가량 앞당겨진(D-day 기준/D-63일)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사전예약 판매 기간 중에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선물세트를 구입할 수 있어 법인 등 대량구매 고객뿐 아니라, 일반 고객들 역시 이 기간 선물세트를 구입하는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롯데마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 매출비중은 25%를 차지했으며, 올해 설의 경우 이보다 높은 27%,



추석은 지난해 설 대비 10%p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지속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번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품목 수는 지난 추석 때 대비 100여 종을 줄여 200여 종을 선보이는 대신, 고객 선호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물량은 20% 가량 늘리고 할인 혜택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신선식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사전 물량 계획을 통해 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추가로 가격을 인하했으며, 롯데, 비씨, 신한, KB국민카드 등 10대 카드(자세한 카드 종류는 매장 내 고지물 참조)로 결제 시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로 농·축·수산물 함량이 50%가 넘는 상품에 한해 상한선이 1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처음 선보인 '천하제일 귀하게 자란 큰 배(9인)'와 '천하제일 귀하게 자란 큰 사과(12인)'를 9만9000원에서 추가로 1만원 인하된 각 8만9000원에 선보인다. 또한, '한우 갈비정육세트(한우 냉동 찜갈비/국거리/불고기 각 0.7kg, 양념 소스·사진)'의 경우도 사전예약 판매 기간 동안 지난해 해와 동일한 9만9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롯데마트는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천일염 참굴비 세트 1호(10마리/마리당 80g 내외)'와 '건강버섯 특선세트(상황 100g/영지 200g/차가 300g)', '호주산/미국산 냉동 LA 갈비(호주산/미국산 냉동 꽃갈비 1.5kg* 2입)' 등이 있다. /신원진 기자 tree6834@

SPC그룹, 블렌디드 티 브랜드 '티트라' 론칭

최상위 품질 원료, 최적의 비율로 섞어

SPC그룹이 블렌디드 티 브랜드인 '티트라(Teatra)'를 론칭했다고 5일 밝혔다.

티트라는 SPC그룹의 연구소인 이노베이션랩의 연구원들이 약 3년 동안 세계 주요 산지를 돌며 찾아낸 최상위 품질의 차(茶) 원료를 최적의 비율로 섞어 탄생시킨 프리미엄 티다.

브랜드명인 '티(tea)'와 '트라(tra)'는 '차(茶)'와 '여행(travel)'의 합성어로 '차와 함께 하는 여행, 차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전통적인 차의 이미지에 고유의 서체와 네이밍, 패키지 디자인을 통해 젊고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티트라는 티백 제품과 제조음료 2가지 형태로 선보인다. 먼저, 티백 제품은 홍차 3종, 녹차 3종, 허브차 6종 등 12종으로 ▲홍차 계열 제품은 퍼스트브레이크, 비차이, 영 그레이 ▲녹차 계열 제품은 하동 시스터즈, 프루티 하동, 하동 플로리스트 ▲허브차 계열 제품은 셀럽 허비스, 윈터 프루트치, 커즈 마인, 런 마테, 민트 크루, 오렌지 보스 등이다.



SPC그룹이 블렌디드 티 브랜드 '티트라'를 론칭했다. /SPC그룹

홍차 계열 제품은 전통적인 제조법을 고수해 만든 인도 아쌈(Assam), 중국 안후이(安徽) 성의 대표 특산물이자 세계 3대 홍차로 일컬어지는 기문(祁門)홍차에 베르가못(Bergamot, 홍차, 향수 등에 사용되는 감귤의 일종)향 등을 조화시켜 깊은 풍미를 갖췄다.

녹차 계열 제품은 한국의 전통 차 시배지(始培地)인 경남 하동 산(産) 녹차와 발효차에 꽃, 건과일 등을 조화시킨 '가향(加香, Flavored)녹차'이며, 허브차 계열 제품의 경우 기존의 민트, 허비스커스, 루이보스, 마테 등에 꽃, 건과일, 향신료 등을 더해 개성 있는 풍미를 표현해냈다.

각 브랜드마다 차별화한 제조음료도 총 48종을 선보였다. /박인용 기자

유통 단신

빙그레

'글레도르 크림치즈바' 2종

빙그레는 프랑스 크림치즈 브랜드 까리와 과일시럽을 접목한 글레도르 크림치즈바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글레도르 크림치즈바 신제품은 까리크림치즈 16% 이상을 함유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으로 치즈와 궁합이 잘 맞는 딸기, 블루베리를 접목해 좀 더 많은 소비자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구현했다. /박인용 기자

투썸플레이스

크리스마스 케이크 출시

투썸플레이스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대표제품은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리스(화환 모양의 장식품)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왕관(Tiara) 콘셉트의 '크리스마스 티아라'다. '크리스마스 티아라'는 휘낭시에 위에 헤이즐넛 초콜릿 무스, 만다린 주레, 견과류가 함께 씹히는 케이크다. /박인용 기자

